

景泰七年 佛像腹藏品에 對하여

張 忠 植

- 一、머리말
- 二、發見遺物の 概要
- 三、願文의 검토
- 四、原所藏 寺刹의 문제
- 五、맺는말.

一、머리말

대체로 佛像腹藏品은 연대를 明記하고 있어 佛像의 絶對年代 파악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佛敎史의 측면에서 볼 때 이들은 믿음의 변천을 알게 하며, 또 民俗學的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가 이곳에 소개하는 佛像腹藏品은 불행히도 犯法者에 의해 佛상으로 부터 탈취되었고, 더구나 市中商人의 손을 거친 연후에 조사된 일괄 유물이다. 따라서 佛藏품의 장엄방식이나 세부 장엄수업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수 없으며 또 어느 佛像으로부터 탈취 되었는지 關係知見을 전혀 알수 없는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腹藏遺品 가운데는 화려한 銀製舍利莊嚴具와 함께 靑色비단, 그리고 조선 초기 開板된 것으로 보이는 法華經 二冊을 위시하여 佛像造成에 따르는 願文을 볼수 있었다. 특히 이 願文에는 景泰七年(서기 一四五六年)이란 기록과 함께 廣平大君, 永膺大君 그리고 翼現君 등 諸君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또 조선 초기의 고승 信眉, 守眉와 함께 大功德主로써 「比丘尼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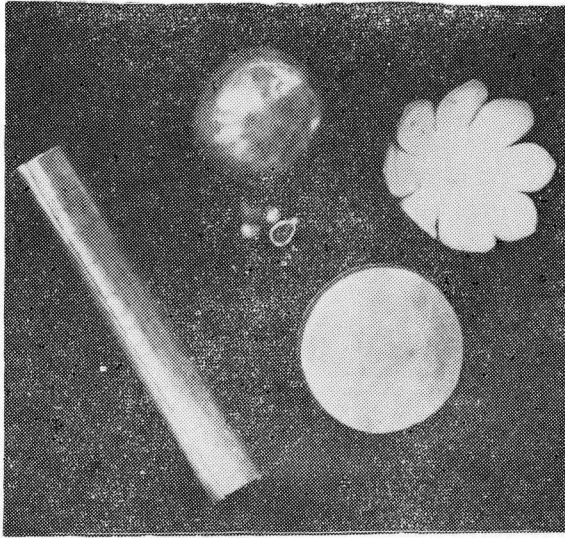


圖 1. 舍利銀盒 및 舍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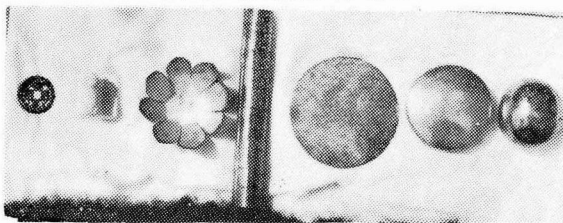


圖 2. 銀製一括遺物

嘉府夫人申氏 慧圓」이란 기록이 보여 처음 佛像이 봉안 되었던 사찰이 王族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願刹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예비 지식 아래 진행된 조사는 마침내 이 遺品들이 世宗의 第五子 廣平大君의 명복을 빌기위해 그 부인 申氏가 조성한 사찰의 佛像腹藏品으로 추정 되었다. 또한 申氏는 말년에 比丘尼가 돼 法名을 慧圓이라한 것으로 추정돼 매우 흥미로웠다.

本稿에서는 발견된 유품을 간단히 소개하고 또 願文의 내용에 따라 發願者 申氏와 廣平大君과의 관계를 밝혀 보았고, 이와 함께 佛藏품이 소장했던 寺刹의 해명을 시도 해 봤다. 아직껏 原所藏 寺刹은 해명되지 않았지만 그 결과 廣平大君의 명복을 빌기위해 부인 申氏가 건립한 見性庵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 申氏는 見性庵을 중심으로 佛敎의 신앙생활에 심취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佛敎史의 입장에서 매우

주목돼야겠지만, 이곳에서는 腹藏品의 보다 명확한 해명을 위한 그 전조 작업으로써 그간의 조사내용을 소개한다.

一、發見遺物の 概要

1. 舍利銀盒 및 舍利(圖 1참조)

① 舍利銀盒

직경 五、五 cm 높이 一、二 cm 로써 打製圓形板을 부착했으며 뚜껑 역시 두들겨서 약간의 틈을 지게하여 造成했다.

② 舍利

舍利는 三粒으로서 二粒은 직경 〇、六 cm 이고, 一粒은 직경 〇、二 cm 이다. 그의 약 一 cm 크기의 타원형 水晶과 약 〇八 cm 크기의 琥珀이 각각 하나씩 있었고 이들은 모두 舍利盒 속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喉鈴과 蓮華반침(圖 2참조)

이 후령 역시 銀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모양은 공모양으로 완전한 원형이다. 직경 四 cm 의 銀球로써 내부는 비었고 上下半圓을 중간에서 접착시켰다. 이 역시 打製銀板으로 造成했다.

蓮華반침 역시 打製板을 八葉으로 올려서 열꽃 모양을 나타냈고 중앙부를 들어가게 하여 喉鈴이 그곳에 담기도록 했다. 직경은 六 cm 높이 二、六 cm 이다.

3. 圓形銀板(圖 2참조)

이 圓形銀板은 그 모양이 흔히 볼수 있는 銅鏡처럼 造成되었으나 그 用處는 잘 알수 없고 직경 七 cm 에 두께 약 〇、〇一 cm 의 얇은 銀板이다.

4. 銀製經筒(圖 2참조)

이는 직경 一、八 cm, 길이 약 十五 cm 의 둥근 管으로서 내부에 陀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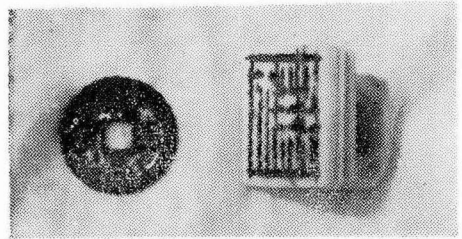


圖 3. 印章 및 寶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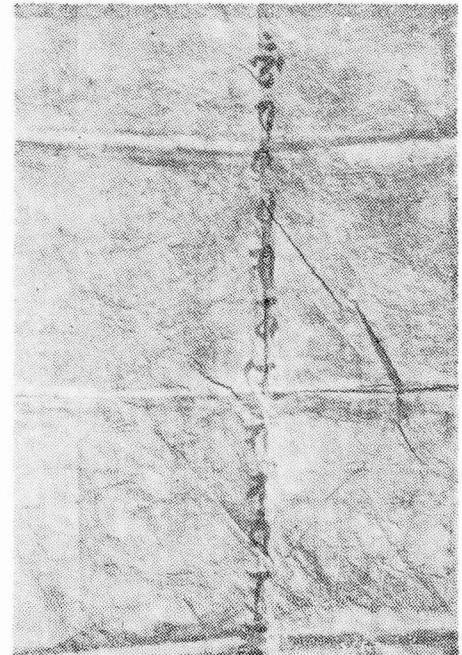


圖 4. 梵文表紙

尼等の經文을 넣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공간이다. 管의 外部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陰刻線이 아홉줄 있다.

5. 象牙印章(圖 3참조)

직경 二、八 cm 의 方形도장으로서 陰刻했으나 글자는 관독하기 어렵다. 上部 손잡이에는 사자를 조각했고 높이는 三 cm 이며 재료는 象牙이다.

6. 葉錢形寶符(圖 3참조)

이는 그 형태가 열전과 꼭 같으나 열전으로 보기는 어렵고 무슨 符로써 사용된 듯하다. 직경은 二、四 cm 두께 〇、二 cm 이며 塗金이 1~4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본래는 완전히 塗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앙에는 정사각형의 구멍이 있고 상하좌우의 銘文은 祥元(九)寶符 4字를 上下左右에 陽鑄했다. 이의 뜻은 확실히 알수 없으나 일종의 寶符로서 불상부장에 장엄된 것으로 보인다. 銘文 가에는 外緣部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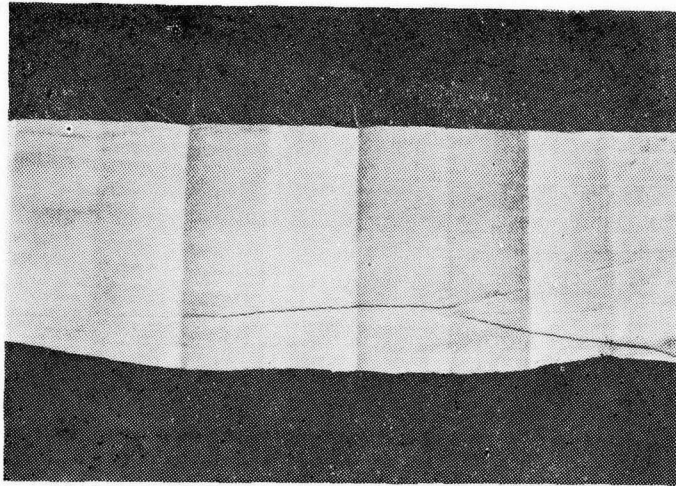


圖 5. 靑色비단



圖 6. 法華經

7. 梵文表紙(圖 4 참조)

이 表紙는 길이 六二、五 cm, 폭 四九 cm 의 韓紙이다. 經書와 文願등을 쌓던 것으로 보인다. 중앙에는 十二字의 梵書가 있으며 字經은 二、五 ~ 四 cm 이고 글자의 총 길이는 四一 cm 이다. 뒷면에는 「喉鈴」二字가 있고 이들은 梵書와 함께 모두 朱書이다.

8. 靑色비단(圖 5 참조)

이 靑色비단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 보존이 매우 양호하다. 크기는

길이 六三 cm, 폭 二二、五 cm 이다. 靑色 바탕에 花紋이 나타나 있으며 좌측 상단에 「主上殿下」라고 朱書했다.

9. 法華經(圖 6 참조)

法華經은 蕓精紙로써 二冊만 있었다. 그중 一冊은 二、三卷의 合本이고 다른 하나는 六、七卷의 合本으로 보아 나머지는 逸矢되었거나 또는 봉안 당시 散佚로써 봉안한 것으로 보인다. 책의 표지에는 두 책이 함께 林長寺(壽) 德重이라고 朱書돼 있다. 이들중 二、三、六卷은 變相畫를 나타내고 있다. 책의 제 1 면에는 8 층이의 印花紋이 있으며 第 2 면에는

童眞菩薩의 變相이 있고 다음장에는 2 면에 걸쳐 靈山會上變相圖가 있다. 經文은 刊記에 의해 成達生(一三七六~一四四三)의 書體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七卷의 跋文에는 「……壬寅春三月日 涵虛堂守伊無準敬跋」이라 돼 있으므로 이 法華經은 涵虛堂 得通(서기 一三七六~一四三三년)이 跋文을 쓴 것으로 보인다. 즉 守伊와 無準은 涵虛堂의 다른 이름이고 號이기때문이다. 따라서 그 刊行으로 보이는 壬寅年은 涵虛堂이 四七歲되던 서기 一四二二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經典이 처음 開板된 후 三四년만인 景泰七年에 가서 發願者에 의해 佛像腹藏으로 써 봉안된 것으로 보인다. 景泰七年(서기 一四五六년)은 世祖 즉위 2년으로서 아직 나라의 혼란기였지만 불교에 관심이 많았던 世祖의 불교정책에 힘입어 王族의 願利에 이상과 같은 장엄구를 구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遺品 외에 功德主 願文이 있는데 이는 중요하므로 章을 달리하여 소개하기로 하겠다.

三、願文의 검토.

이 願文은 모두 壯紙로써 3종이 있다. 먼저 이들을 A, B, C로 분류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圖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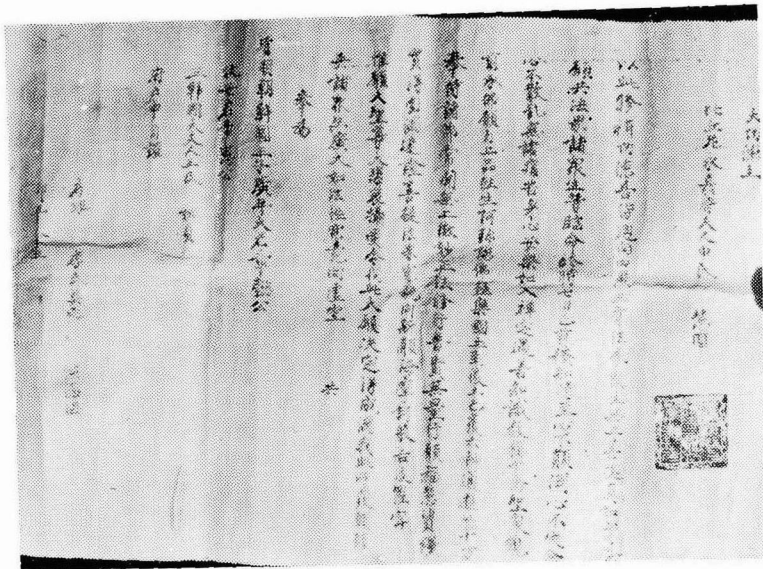


圖 7. 功德主 願文(部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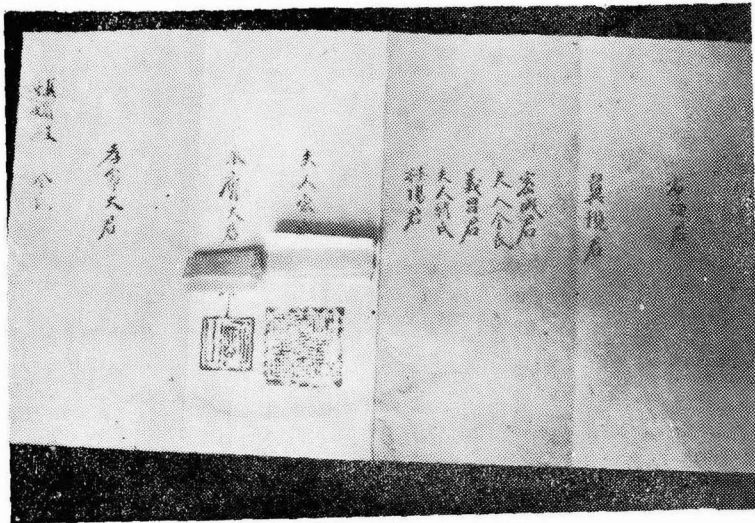


圖 8. 永膺大君의 手決斗 方印

A、大功德主

比丘尼永嘉府夫人申氏 慧圓

以次修補功德 普皆廻向 四恩三有 法界衆生 無上菩提眞如實際 願共法界諸衆生等 臨命終時 七日已前 豫知時至心不顛倒 心不失念 心不散亂 無諸痛苦 身心安樂 如入禪定 遇善知識 教稱十念聖衆 現「前承佛願力 上品往生 阿彌陀佛極樂國土 到彼土已 獲六神通 遊歷十方」 奉侍諸佛 常聞無上微妙正法 修行普賢無量行 願

永嘉府
夫人申
氏之印

福慧資糧」 實得圓滿 速證菩提 法界冤親 同斯願海 摩訶般若波羅密」 惟願大聖專大 悲哀攝受 令我次大願 決定得成滿 我次所發願 願與諸衆生 廣大如法性 究竟同虛空 共

奉爲

有明朝鮮國王 子 廣平大君 章懿公

抗安君 章惠公

三韓國 大夫人 王氏 妙貞

府尹 申自謹

本班 李氏 莫之 洪德海

印平 企雲

比丘尼 韓氏 无着

永順君 兩位

本氏 惠義

比丘尼 智愚 學梅 學尊

學恩 妙嚴 妙蓮

善修 學全 釋金

寶松 其每 丁善奇

田述花蔓 崇隱 金良貴

比丘信眉

景泰七年 丙子九月

이상과 같은 發願文을 검토해 볼 때 發願의 主人公은 永嘉府夫人申氏로 보이고 또 廣平大君을 위시한 王族의 淨土往生을 祝願하는 내용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腹藏遺品の 내용과 申氏와는 어떠한 연관을 갖는 것일까. 그것은 먼저 崇儒를 國是로 하는 儒敎社會에 있어서 王室의 신앙형태를 알게하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하겠다. 특히 申氏는 廣平大君의 부인으로서 發願文의 내용에 보이는 바와같이 그가 女僧인 比丘尼가 되었다 함은 전혀 새로운 일이며 의심스런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가 比丘尼가 되었던 아니되었던 간에 이시대 世宗末年에는 이미 궁중에 상당히 佛敎의 분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通念이다. 世宗二六年에는 世五子 廣平大君이, 二七年에는 世七子 平原大君이, 그리고 二八年에는 다시 昭憲王後가 薨하자 연이은 喪事로 인해 世宗 자신이 信佛로 많이 기울어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王室佛敎의 분위기에 힘입어 부인 申氏에의해 大君의 명복을 빌기 위한 사원이 건립될 수 있었다고 충분히 짐작된다.

따라서 廣平大君이 世宗 二六年(서기 一四四四年) 弱冠의 나이로 즉자 부인 申氏는 大君을 위해 절을 짓고 명복을 빈 것으로 보인다①. 그 절이 바로 다름아닌 見性庵이었고 또 절은 大君의 墓側에 건립된 것으로 생각된다②. 그리고 願文에서와 같이 申氏는 比丘尼가 돼 法名을 慧圓이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佛像腹藏記와 함께 발견된 유물들이 廣平大君의 墓域에 세워졌던 見性庵 佛像의 腹藏遺品이라 볼 수는 없을까.

그러나 우리들은 아직까지 성급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몇 가지 복합적 문제들을 지니고 있다. 여기 대해서는 후에 再論하기로 하고 이곳에서는 願文에 대한 조사를 先行하기로 한다.

願文은 壯紙로서 크기는 길이 二六 cm 폭 六一 cm이다. 申氏의 法名 밑에는 方印을 눌렀는데 이는 가로, 세로 五、五 cm 크기로서 「永嘉府夫人

申氏之印」이라고 篆書로 陽刻했다. 대체로 願文의 내용은 흔히 볼 수 있는 佛徒들의 發願文으로써 極樂性生을 기원하는 내용이고 그 끝에 「奉爲」 「有明朝鮮國王 廣平大君 章懿公」이란 기록과 함께 抗安君 등 諸君의 이름이 보이고 있으며 마지막에는 「比丘信眉」의 명이 상부에 뚜렷하게 있어 주목되고 있다. 信眉는 金守濫의 兄으로서 世宗의 총애를 받던 이시대의 고승이다. 그리고 그 끝부분에 「景泰七年 丙子 九月日」이라 돼 있으므로 廣平大君의 死後 十二년만인 世祖 二년(一四五六年)에 佛殿과 佛像을 完備하고 이 佛장품을 봉안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우리들은 廣平大君의 死後 佛敎에 深醉했던 申氏의 종교적 性向에 대해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그가 어느 정도까지 佛道의 수행에 심취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자기의 佛名 위에 「永嘉府夫人 申氏」라고 한 것은 아무래도 순수한 香徒의 입장 보다는 王室의 권위에 치중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申氏가 比丘尼란 명칭을 사용한 것도 夫君 廣平大君의 명복을 빌기 위한 행동으로 되풀이될 것이다. 그렇다면 現世의 福樂과 來世의 往生을 希求하는 불교신앙의 입장이 王室이란 배경 아래 더욱 경제적 富를 수반하여 이와같은 佛장 유품을 남길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B, 同發文

某等、無始却來 淪沒業坑 昇沈「苦海 幸得人倫 未達善時 我」

主上殿下宿

資善願當承末運 權現世間 乃以雄猛「智政 永滅邪種 令國祚更新 四海

復清「安 仰希」

聖代令社稷永固之願與永膺大君 共成藥師三

尊 同種妙因 普與隨喜 見聞同入 薩婆若海 同乘般若舟 航共到彼岸」

狀惟

三寶證明

幹釋道人慶照
金乙保兩主

本元萬兩主

前僧伽寺住持定澁

前觀音堀住持竹軒

大功德主判禪宗事都大禪師 守眉

王竿

徐氏

寧海君

翼現君

密城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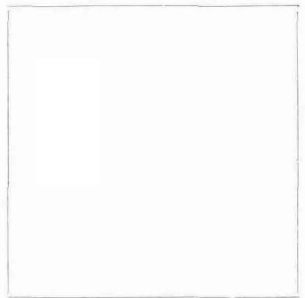
夫人金氏

義昌君

夫人韓氏

桂陽君

永膺大君琰



孝寧大君

愼嬪殿 金氏

世子邸下壽千秋

公主李氏

王妃殿下壽齊午

主上殿下萬歲萬萬歲

夫人宋氏



이상의 願文에서 大禪師 守眉가 大功德主로서 등장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守眉는 信眉와 함께 조선 초기 불교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 고승이다. 따라서 그의 이름이 다시 別紙 發願文에 보이고 있는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닐 것이다.

또 永膺大君과 夫人宋氏가 나란히 보이고 孝寧大君 그리고 寧海君 등 諸君의 이름이 다섯이나 기록돼 있어 이 願文이 순전히 王室의 척족들의 福樂을 기원하는 願文이라 하겠다. 특히 이 가운데 永膺大君은 手決을 보이고 있으며 그 手決(琰) 아래에는 잘 판독되지 않는 三、八cm의 方印이 눌러 있음을 볼 수 있다(사진 8 참조). 또 그 오른쪽에는 夫人宋氏라 하고 바로 밑에는 역시 五、五cm의 方印이 있음을 본다. 이 方印은 「密城府夫人宋氏之印」로 읽을 수 있었다. 이들 方印 위에는 鬚紙를 놓아 朱肉이 묻는 것을 방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願文 B부분에서 비로소 佛像의 尊名이 보이고 있음은 이

부장유물과 함께 불상에 대한 관계지점을 얻는데 어떤 실마리를 찾을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들은 다소 혼란돼 있으므로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이들은 앞서 인용한 A부분과 함께 동일한 불상에서 발견된 것인지도 확실치 않다. 다만 藥師와 함께 봉안 될수 있는 主尊佛은 석가와 함께 미타를 지목할 수 있을 것이다③.

이 發願文 역시 壯紙로서 길이 二四一cm, 폭 二九、七cm의 墨書이다.
C, 부분

이 기록은 앞 부분이 결실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佛事에 관계했던 道俗의 名單이 나열돼 있음을 본다.

이들의 명단은 무려 九〇여명에 이르며 「畫員」은 李中善 「寶冠」 조성은 金今音知, 그리고 「造佛」은 省道임을 알 수 있다. 번거로워 이들, 명단의 소개는 생략한다.

이 역시 壯紙로써 크기는 길이 二一一cm, 폭 二二、六cm이다.

따라서 이 願文 C부분도 동일 사찰의 불상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이지만 願文의 내용이나 성격상 동일 불상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곳에서는 앞 부분이 단절돼 있고, 또 시주자의 명단이 대부분 일반서민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서로 다른 불상의 복잡함으로 볼 가능성이 더욱 농후하다. 그렇다면 본래 복잡함이 소장돼 있던 사찰의 불상은 A, B, C, 종류의 願文을 각각 지닌 三尊佛이었다는 추정을 가 능케 한다④.

四、原所藏 寺刹의 문제

世宗大王의 제五子 廣平大君이 죽자 世宗은 매우 哀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大君의 夫人 申氏는 후에 奴婢와 田結을 大量 佛寺에 施納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며⑤ 또 夫君의 墓側에 僧三四百名을 수용할 수 있는 見性庵을 經營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⑥.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은 申氏가 그의 夫君의 명복을 빌기 위해 이룩했던 見性庵

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렇다면 먼저 見性庵의 所在를 파악하여 그 現狀을 조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직 까지 見性庵에 대한 자료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見性庵 건립의 시기보다 조금 앞서거나 또는 그 직후에 편찬된 것으로 생각되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이나 「東文選」등에서는 그 사찰의 존재를 찾기 어렵다 할 지라도 寺刹全書⑦에서 언급돼 있을만 하지 않았을까, 승려 二三百名을 수용할 수 있었던 절이라 하면 상당한 大刹이라 하겠으나 이에 대한 存在를 알 수 없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유교 사회에 있어서 大君의 夫人이 比丘尼僧이 되었다면 儒敎측 입장에서 볼때 그렇게 자랑스런 일임을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故意的으로 寺刹의 所在나 존재를 외면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다. 여기에 어떤 혼동이 있는 것은 아닐까⑧ 따라서 우리들은 見性庵의 所在와 과안에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먼저 관계문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廣平大君의 墓所는 廣州에서 서쪽으로 三五里 지점⑨이라 기록하고 있으며 또 「濞源譜系」에 의하면 「廣州에서 서쪽 二五里 光秀山」⑩이라고 山名까지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의 해명을 위해 지난 五月 二三日 현지를 답사했다. 답사에 앞서 墓所의 소재지는 화양동에 있는 廣平大君宗會의 도움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송동 山一〇번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낮은 막한 野山을 光秀山이라 했고 墓所 入口에는 宗家와 齋室이 있었으며 墓域은 王陵과 별로 다름없이 잘 가꾸진 구모있는 墓所였다. 墓는 大君과 夫人 申氏의 묘가 나란히 雙墳으로 있었다. 즉 「有明朝鮮國王子 廣平大君諡章懿公之墓」와 「永嘉府夫人 平山申氏之墓」라고 쓴 墓碑銘이 나란히 있었다. 그리고 墓側에는 萬曆 二午(서기 一五七四年) 건립의 神道碑銘이 있고 墓前面에는 石燈과 文人石 등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永嘉夫人 申氏의 墓가 大君墓 바로 곁에 같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앞서 인용한 腹藏記의 내용에 따라 부인 申氏가 尼僧이 됐다는 사실은 再考되어야 할 것이다. ⑪ 그러므로 앞

서 많한바와 같이 申氏의 종교적 性向이란 오직 일찍 세상을 떠난 夫君의 명복을 빌기 위한 發願의 一念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곳에서 見性庵 寺址를 찾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동리의 村老들은 절이 있었다는 사실까지도 가망이 없고 있었고 다만 이곳으로부터 약 三km 떨어진 곳에 있는 藥師寺(2)를 설명해 주는 것이었다. 할수없이 약사사를 찾다가 우연히 이곳에서 출생하여 四〇여년을 살고 있는 홍성철씨를 만나 廣平大君 墓所 건너편에 옛부터 「절터」라고 전해오는 장소가 있고 또 그 골짜기 일대를 「절골」이라 한다는 말을 들을수 있었다. 다행히 동리 사람의 안내로 절터를 찾을수 있었는데 廣平大君의 墓所에서 건너다 보이는 약 一km 지점에 千餘坪의 寺址를 확인할수 있었다. 西向한 寺址에는 길이 약 一m에 달하는 장방형 축대석이 寺址 동남쪽에 즐비하게 있었다. 또 밭으로 된 寺址에서는 수많은 瓦片和 함께 완전한 형태의 솟기와 수매를 볼수 있었는데 이 솟기와는 다소 시대가 떨어져는 후기의 것이었다. 따라서 절은 상당히 후기까지도 존재했던 것으로 풀이되었다. 그리고 寺址에는 조선 전기에 속하는 상당수의 瓷器片을 볼수 있었는데 개중에는 상당히 큰것도 있었으며 대부분 색채가 정교하고 깨끗하여 매우 귀품있는 瓷器類였음을 알수 있었다. 따라서 이곳 寺址 일대는 見性庵으로 확인되었고 동시에 발견된 腹藏品과는 無關한 寺址임을 알수 있었다. 이로써 이곳 見性庵外에 廣平大君 등 家內一門의 명복을 빌기위해 건립된 또 하나의 사찰이 있었음을 알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腹藏遺品の 出世地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五、맺는말

이상에서 살펴본 一括遺物은 世祖二(一四五六) 發願者 申氏에 의해 佛像腹藏으로 봉안된 것이지만, 아직 原所藏寺刹은 해명되지 않았다. 다만 이곳에서는 申氏의 願刹 見性庵址를 발견했고, 그 결과 북장유물

의 소장사찰은 見性庵과 無關한 別個의 사찰을 설정할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곳에서 하나의 새로운 의문을 제기치 않을수 없다. 그것은 알다시피 永嘉夫人 申氏를 比丘尼 慧圓이라 기록한 사실이다. 腹藏記의 내용을 그대로 믿는다면 간단하겠지만 現地의 조사결과와는 아직까지 의문에 쌓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申氏가 願刹 見性庵에 住하면서 餘生을 佛道에 精進했던 것은 사실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다시 이곳에서 하나의 추정치를 허락한다면 申氏는 臨終에 가서 불교에 대한 信心을 더욱 일으켜 尼僧이 되었다고 볼것이다. 그결과 이와같은 사실은 다른 사찰의 腹藏記에도 적용돼 權威를 나타내는 「方印」까지 찍었다고 할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절은 見性庵과 그리고 申氏와도 밀접한 관계에 있던 사찰로 봐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하여는 佛敎史的 입장에서 더욱 밝혀져야 하리라 본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불교신앙의 현상을 排佛一邊倒로만 보아오던 재래의 관념에 大君의 夫人이 尼僧이 됐다는 기록은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들 腹藏品을 간직했던 사찰을 발견하여 불상의 양식 고찰은 물론 그동안 혼미했던 사실들을 밝힐수 있는 시기가 올것을 기대하며 우선 그간의 조사내용을 기록해 둔다.

註

① 이러한 사실은 「功德主願文」에서 뿐 아니라 金守溫의 拭疣集 卷二「見性庵靈應記」에서도 보인다. 즉 「夫人永嘉申氏、哀悼罔極、及其葬則、益無所依歸就塋域之側、大建伽藍、云云」이 그것이다.

② 註①참조

③ 直指寺 大雄殿 後佛幀(乾隆九年(一七四四))의 경우뿐만 아니라 석가불 중심으로 미타 약사를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 예를 볼수 있기 때문이다.

④ 願文 B부분에서 보인, 永膺大君의 「共成藥師三尊」이란 내용은 더욱 주목해야 하리라 본다.

- ⑤ 成宗實錄 卷十一、二年辛卯 八月 壬子條 「司憲府掌令洪貴達來啓曰、廣平大君夫人申氏 將奴婢七百三十餘口 并前所生田七十餘結 施納佛寺。云云」
- ⑥ 金守溫 拭疣集 「見性庵靈應記」 「藏寓僧三四百指 晨夕薦廣平大君之靈、以願生於淨土、此見性庵之所由作也」
- ⑦ 東國大學校 所藏 退耕 權相老先生 原稿本으로서 이곳에는 국내 대부분의 사찰을 총망라하고 있다.
- ⑧ 現地에서 들은 廣平大君 墓所의 行記는 春秋二 회로 한정했다지만 현재도 俗의 行記에는 약 六七百명의 후손이 모인다하니 그 후손 역시 번성하여 先祖의 願利 하나쯤 보존하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 ⑨ 新增東國輿地勝覽 第九卷 廣州牧 陵墓條 「廣平大君墓、永順君墓、俱在州西二十五里」
- ⑩ 이 璿源譜系의 기록에 대해서는 藏書閣 黃天午선생의 도움을 받아 알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협조에 감사한다.
- ⑪ 사실 佛僧들은 死後 火葬하여 散骨하는 것이 通例의 葬法이지만 꼭 이같은 자취를 든다면 그 門徒들에 의한 舍利浮屠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⑫ 藥師寺를 조사했으나 大君의 墓域과는 無關한 곳이었고 法堂에는 아래 동리의 논(부처논)에서 출토됐다는 石造藥師如來坐像을 봉안하고 있었다.

(東國大學校 博物館)